

손흥민 70m 폭풍질주 골 'EPL 역대 최고의 골'

3주동안 이뤄진 팬 투표서 선정 찬사 또 찬사... 각종 상 휩쓸어 그해 세계서 가장 멋진 골 뽑는 FIFA '푸스카스상' 선정 관심



바로 이 장면 손흥민이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70m를 홀로 드리블한 뒤 슈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의 '70m 폭풍질주 골'을 향한 찬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중계권사인 영국 방송 스카이스포츠는 28일(한국시간) EPL 역사상 최고로 멋진 골을 뽑는 팬 투표 결과, 손흥민의 골이 26%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의 70m 질주 골은 최고의 골을 뽑는 각종 이벤트를 휩쓸고 있다. 지난해에는 런던 연고 클럽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최고의 골'로 뽑혔고, 전날에는 영국 매체 '더 에슬레틱'이 '올해의 골'로 선정했다.

이번에는 2019-2020시즌만이 아닌 EPL 28년 역사상 가장 멋들어지게 들어간 골을 뽑는 이벤트였다.

총 50개 후보를 대상으로 3주 동안 팬 투표를 받은 결과, 손흥민의 골은 웨인 루니가 2011년 2월 12일 맨체스터 데비에서 넣은 시저스킥 골(13%·2위)의 두 배나 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거머쥐었다.

스카이스포츠는 "이 골은 지난해에 나왔지만, 손흥민의 탁월함은 그보다 과거 시즌에 나온 골들을 제치고 왕관을 차지할 만큼 인상적이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손흥민의 골이 각종 상을 휩쓸자 '이제 남은 건 국제축구연맹(FIFA) 푸스카스상뿐'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푸스카스상은 FIFA가 그해 전 세계에서 나온 모든 골 중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7일 번리와의 EPL 16라

운드에서 전반 32분 폭풍 질주 후 골을 넣어 축구 역사에 기록될 멋진 득점 장면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당시 손흥민은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아 약 70m를 내달리며 무려 6명의 번리 선수를 따돌린 뒤 오른쪽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3위에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리버풀 소속이던 2012년 11월 4일 뉴캐슬전에서 넣은 골이 자리했다. 이 골은 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손흥민은 '슈퍼스타'에서 '훈련병' 신분이 돼 제주도 해병대 훈련소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PL 6월초 재개 목표 구체화

팀들 거리두고 훈련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6월 초 재개를 목표로 두고 계획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영국 BBC는 EPL이 '프로젝트 리스타트(Project Restart)'로 이름을 붙인 시즌 재개 계획을 이번 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재개 옵션 논의를 위한 클럽들의 회의가 다음 달 1일 열릴 것이라

고 27일(현지시간) 전했다.

2019-2020시즌 EPL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92경기를 남기고 지난달 13일 중단된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중단이 길어질 경우 '시즌 취소'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여러 방안이 오르내리다 최근엔 6월 재개하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EPL의 청사진은 6월 8일 경기를 다시 시작, 7월 말 시즌을 마쳐 유럽축구연맹(UEFA) 대항전 일정에 맞추는 것이다.

시즌이 재개되더라도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료 TV 중계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방침 등 다른 고려 사항이 많아 리그 내부 합의만으로 재개를 정할 수는 없기에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문화부 장관은 최근 의회 문답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축구계를 지원하고자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리그와 논의 중이다"라며 "모든 결정은 공공 보건 지지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8일부터 경기를 치르기 위해선 5월 18일엔 각 팀의 소집훈련도 전면 재개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아스널, 브라이턴, 웨스트햄 등은

선수들의 개인 훈련을 위해 27일 훈련장을 개방했다.

각 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춘 훈련 지침을 마련했다.

아스널의 경우 선수들이 순서를 짜서 오고,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10개의 피치를 사용한다. 공도 각자 배정받은 것만 쓸 수 있다.

선수들이 주차할 곳도 미리 정해지며, 훈련장 내 건물은 폐쇄했다.

28일부터 1군 선수들의 개인 훈련을 위해 일부 그라운드를 여는 토트넘도 한 번에 훈련하는 선수수를 제한한다.

이밖에 하나의 피치를 한 명만 쓰게 하고, 선수들이 이동할 때도 각자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지방체육 화합 다지고 안정적 재정 확보 소통하는 열린 체육회 거듭나기 '쟁걸음'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 취임 100일

'소통하는 열린 체육회'

지난 1월 15일 첫 민간 지방체육회장으로 취임한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24일로 취임 100일 맞았다. '김창준호'는 '소통하는 열린 체육회'를 핵심 축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실천했다고 체육회는 자평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 현안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 ▲경쟁력 있는 전문체육·학교체육 육성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체육인 복지 확대 및 소통 강화 등이다.

시체육회는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재정 내실을 다지고 있다. 관(官)에서 민(民)으로 체제가 바뀌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 집행부도 새롭게 꾸렸다. 학

교-전문-생활체육의 조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종목단체 회장 선임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고루 등용해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담았다. 종목간 균형 있는 인사 안배도 조직구성의 특징이다.

시체육회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와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도 늘렸다. 홍보위원회, 미래체육발전위원회, 체육시설운영위원회 등을 신설, 분야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시체육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 발 앞 사회봉사로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와 환자를 위한 급식 봉사나 헌혈자 수 급감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덜어주기 위해 헌혈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시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회장 등 체육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총 1100만 원의 성금을 지역민과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야외 체육활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김창준(왼쪽에서 두번째) 광주시체육회장이 광주체육고를 격려 방문해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도 제작, 제공했다.

김 회장은 전국시도체육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지방체육 간 소통과 화합, 상호협력을 다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됐다.

김창준회장은 "오직 시민과 선수를 위해 일하겠

다는 다짐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체육들과 함께 맘 흘리는 파트너'라는 마음으로 시민건강강진, 우수선수 육성을 목표로 소통하는 열린 체육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셔틀콕 천재' 광주체고 안세영 코카콜라 체육대상 신인상 수상

'셔틀콕 천재' 안세영(18·광주체고)이 '제 25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신인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코카콜라(대표 최수정)가 주최하는 '코카콜라 체육대상'은 한국 아마추어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지난 90여년 동안 올림픽 파트너사로 활동해 온 코카콜라가 1995년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500여 명의 선수·지도자에게 상이 주어졌다.

안세영은 지난해 뉴질랜드 오픈, 캐나다 오픈 등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BWF)으로부터 '올해 가장 유망한 선수(BWF신인상)'로 선정됐으며, 지난 12일에는 포브스지 선정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최우수선수상은 펜싱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 1위를 기록 중인 오상욱(24·성남시청)이 가져갔다. 오상욱은 지난해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단체전을 석권하고, 아시아선수권대회와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도 2관왕에 올랐다.

우수선수상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혼성전 금메달 등을 획득한 양궁 강채영(현대모비스)과 국제유도연맹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100kg급에서 우승한 유도 조구함(수원시청)이 차지했다.

세계태권도연맹 선정 '2019년 올해의 선수'에 올랐던 장준(한국체대)도 안세영과 함께 신인상을 받았다.

우수단체상은 사상 첫 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쥔 남자 럭비 대표팀이, 장애인 우수선수상은 20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낸 남자 휠체어농구 대표팀이 가져갔다.

지난해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축구 사상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남자대회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지휘한 정정용 현 서울 이랜드 감독은 우수지도자로 선정됐다.

오상욱을 비롯한 펜싱 대표팀이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신헌 대한펜싱협회장(SK네트웍스 회장)은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올해 코카콜라 체육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별도 행사 없이 수상자에게 개별 시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코트디부아르 축구 영웅 드로그바 자국 축구협회장 선거 '0표' 쓴맛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를 주름잡았던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디디에 드로그바(42)가 자국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쓴맛'을 봤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28일(한국시간) 드로그바가 코트디부아르 축구협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한 표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은퇴 선수인 투표자 14명 중 11명이 드로그바의 강력한 경쟁자인 소리 디야바테 현 축구협회장에 표를 던졌고, 3명은 기권했다.

드로그바와 이드리시 디알로 현 부회장은 한 표도 받지 못했다.

드로그바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됐다. 당초 '당선 1순위'로 여겨지던 축구 행정가 유진 디오만테가 사퇴한 데다 전 국가대표팀 주장들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도 받았다.

더 선은 "1차 투표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서아프리카 축구계가 당분간 떠들썩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드로그바의 꿈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코트디부아르 축구협회장 선거는 2차례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도자, 심판,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2차 투표 유권자들이 드로그바에게 표를 던지면 '뒤집기'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어벤저스: 엔드게임
2관	어벤저스: 엔드게임,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서치 아웃
3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4관	호텔 레이크
5관	기생충: 흑백판
6관	기생충: 흑백판
9관	라라랜드,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7관 씨네캐플	1917, 서치 아웃
8관 씨네캐플	오픈 더 도어, 어벤저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II - 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